

# 1970년대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

박사 부교수 정 대 봉

## 1. 서 론

우리 당사상사업의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동원하는데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일색화하며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해서는 우리 당을 더욱 전투적이고 생기발랄한 당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당사업,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2권 405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방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지난날의 당사업을 백지화하고 새 출발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주의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당을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 낡은 형식주의의 틀을 대담하게 마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 2. 본 론

1970년대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주의의 기치밑에 가장 뚜렷한 목표와 휘황한 설계를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가는 력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당이 내세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사상사업에 남아있는 낡은 틀을 철저히 마시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시 당사상사업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1970년대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사상사업을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하는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확립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당사상사업을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하는 체계와 질서를 세운다는것은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의 령도자에게 집중시키고 당의 령도자의 유일적지도밑에 사상사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이 사상사업에서 유일관리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사람들속에서 사상적혼란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것은 일부 나라 당들이 겪은 심각한 문제였다.

쏘련공산당이 레닌의 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당사상사업의 목표로 내세우고 당안에 수령의 사상의 유일적지배를 확고히 실현하고 당원들을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시켰더라면 우연분자, 배신자들이 나타나 교묘한 방법으로 수령의 사상을 헐뜯고 당의 지도권을 탈취하였다 하여도 그들의 반혁명적정체를 인차 폭로할수 있었을것이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어느 한 공산당도 당안에서 사상의 자유화를 허용하여 곡절을 겪었다. 이 당은 1950년대말 《백화제방》, 《백화쟁명》의 구호밑에 신문에서 반사회주의적인 글들을 발표하게 허용하였으며 당의 령도에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우익분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과 사회주의제도를 공격해나섰다. 후과는 당사상사업의 중요전선인 출판보도부문과 문화예술부문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력사적교훈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사상사업을 진행하는 엄격한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것을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선차적인 문제로 보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면서 당사상사업을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진행하는 체계와 질서를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밝히시였다.

당사상사업의 기본원칙은 철두철미 당의 유일적령도이며 이 원칙을 관철하려면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사상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는 수령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강한 중앙집권적규률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사상사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결론에 따라 처리해나가는것은 당사상사업의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

사상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지 않으면 당안에 수정주의, 종파주의가 생겨나 당과 혁명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당시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전달침투사업이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던 비정상적인 현상은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사업을 맡아보던 책임임군들이 모든 사업을 수령중심론의 견지에서 보지 못하고 또 혁명발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3(1974)년 2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당중앙위원회에서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세워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는 중요회의들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와 연설, 결론 등을 정상적으로 침투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사상이 모든 당조직들에 즉시 전달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당사상사업에서 자그마한 자유주의적현상도 나타나지 않게 장악지도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당조직들이 해당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는것은 독단적인 행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래당조직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장악지도하도록 강하게 통제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를 당중앙에 제때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6(1977)년 2월 일군들에게 당사상사업에서는 당중앙이 《가》하면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조직들이 다 《가》하여야 한다고, 당중앙이 《가》하는데 《나》하거나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벌써 당안에 우리 당의 사상과는 다른 사상이 침습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안에서 제멋대로 지시하고 결론하는 자의적인 현상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도록 강한 투쟁을 벌려나가면서 모든 사상사업을 당의 유일적 령도밑에 진행해나가는 정연한 체계를 세울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전당에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목적은 당의 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해나가자는데 있는것만큼 당안에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5월 함경남도안의 여러 부문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함흥시를 찾으시였을 때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와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가 있는지도 몇달이 지났지만 당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호 하나 써붙인것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 및 함경남도당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최근 당에서 새로운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는데도 《속도전》, 《전격전》, 《섬멸전》이라는 구호 한 장 써붙이지 않은것은 함경남도가 아직도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해 7월에도 당의 방침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이 부족한 현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잡초가 처음 싹틀 때에 애당초 그 뿌리를 뽑아버려 다시는 그 자리에 잡초가 나오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일군들이 당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제때에 타격을 주어 다시는 그런 현상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조직들에서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을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하는 체계와 질서가 철저히 세워지게 된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확고한 담보로 되었다.

1970년대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방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항일유격대식사상사업방법은 항일혁명의 간고한 나날에 창조되고 그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위력한 사상사업방법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으로서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혁명가들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업방법이며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사업방법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사상사업분야에 낡고 유해로운 행정화, 형식주의의 그릇된 사업방법을 끌어들이고 조장시켰으며 사상사업이 진실로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없게 하였다.

당사상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행정화, 형식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사상사업에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우리 당선전선동사업방법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선전도 하고 선동도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벌려나갈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지난 시기 우리 당사상사업에 저해를 주고있던 행정화, 형식주의에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고 사상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혁명적인 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사상사업을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우선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이 바로 군중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선전도 하고 선동도 하며 그들을 혁명화하고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킨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선전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자기 손으로 열매를 거두어들이며 특히 군당선전일군들이 누구보다 현실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2(1973)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 일군회의에서 일군들이 배낭을 지고 아래에 내려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당선전일군들이 한달에 20일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며 10일동안은 올라와 학습도 하고 총화사업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이 아래에 지장없이 내려갈수 있게 문건을 간소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기구체계를 개편하여 일군들의 직제와 분담을 바로잡아주시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에게 당사업에서 행정식방법의 해독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당사상사업을 행정화하는 경향을 반대하는 투쟁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 교양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사상사업이 진실로 사람과의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선전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데 이어 지방당조직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을 어떻게 동원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모든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쳐주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4(1975)년 2월 16일 3대혁명전시관을 돌아보시다가 사상혁명관에서 안주군(당시)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갈 때 메고다니던 배낭을 보시고 이제야 당사업이 제 궤도에 들어섰다고, 이게 바로 자신께서 생각한 당사업방법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4(1975)년 3월 3대혁명전시관에 나가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아주신 그 배낭을 헤쳐보시며 안주군당일군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잘 리해하고 받아물었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도 거두어들이는 참신한 사업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사상사업을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또한 선전선동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창조적으로 하도록 하시였다.

사상사업을 형식을 차리고 회수를 채우는 식으로 하고 그 어떤 도식에 맞추어 천편일률식으로 하며 통계자료를 받아내고 자료통보나 하는 식으로 한다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해야 할 사상사업은 본래의 본성과 사명에는 어긋나게 실무적인 사업으로 밖에 될수 없게 된다.

력사적경험과 교훈은 사상사업에서의 형식주의, 도식주의, 행정화를 철저히 극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여기에 사상사업의 성과여부가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로부터 사상사업에서 형식을 차리지 말고 자기의 구체적실정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하시고 쓸데없는 형식에 매달려 당사상사업을 참신하게 하지 못하고있던 일군들의 눈도 띄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중앙과 도의 축소판에 지나지 않는 어느 한 군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시면서 틀부터 차리고 멋부터 부리기 좋아하는 일군들의 결함을 지적하시오 군에서는 어디까지나 유격대식으로 피리, 하모니카, 손풍금 같은것을 가지고 공연을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주체65(1976)년 5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선전선동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 하거나 걸치레만 하는 현상을 없애고 조성된 정세와 당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발적으로 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사업에서 행정화,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항일유격대식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전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당선전일군들이 늘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선전사업을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게 참신하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사상사업을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또한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한 단위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대중령도방법의 하나이다. 시범을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은 긍정적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주며 그들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확신성있게 일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사상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낡은 학습방법을 없애고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인 문답식학습방법을 전당에 받아들이기 위한 시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해나가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주체62(1973)년 6월에 중앙예술단체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이 진행되었으며 그 경험에 기초하여 이해 10월말~11월초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 문답식학습방법이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방법을 없애고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며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동지호상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우월한 방법이라는것이 확증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후 문답식학습조직과 관련한 방법론을 세워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내도록 하시였으며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문답식학습의 시범단위를 만들고 적극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당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학습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여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해 나가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문답식학습경연을 널리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제1차 전국학습경연대회를 통이 크게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주체64(1975)년 1월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기관, 협동농장들에서 학습경연이 일제히 시작되어 군별, 도별로 진행되는데 이어 도에서 우수한 단체들로 중앙경연대회가 성대히 조직진행되었다.

제1차 전국학습경연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김일성**주의학습을 강화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불타는 결의가 차넘친 대 학습축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1차 전국학습경연대회소식을 신문, 방송을 통하여 광범히 보도하며 당보에 사설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치게 하자》를 내보내어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이 전당과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시였다.

제1차 전국학습경연대회를 계기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조직과 운영의 기본형식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문답식학습방법을 비롯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우월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해설침투하고 모든 단위에서 문답식학습을 활발히 조직하도록 하심으로써 온 나라가 학습분위기로 끓어번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편 강연강사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시였으며 시범강연, 순회강연들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우수한 강연방법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시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항일유격대식경제선동을 새롭게 창조하고 일반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주체62(1973)년 6월 재령, 은률, 태탄광산에 당, 경제, 출판보도일군, 예술인들을 망라하는 경제선동대가 파견되어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벌리였으며 이 과정에 항일유격대의 대중정치선동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경제선동경험이 창조되었다. 이해 11월에는 금성트락트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진행된 큰 규모의 경제선동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선동의 본보기가 창조되었으며 온 나라에 일반화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선동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본보기단위들에서 이룩된 당사상사업의 귀중한 경험들이 모든 당조직들에 급속히 파급되게 되었으며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빠른 속도로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 3. 결 론

참다운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공고발전되어온 우리 당의 력사에서 1970년대는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뚜렷이 아로새겨진 빛나는 년대로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사상사업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위업수행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위대하고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 있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던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려일으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그 거세찬 위력에 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실마리어 당사상사업, 문답식학습, 경제선동